

미국 관세 위기 선제대응 총력전

도, 800억원 규모 금융지원으로 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 수출 바우처·판로 확대·전문가 컨설팅 등 전방위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관세 정책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다층적인 지원책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복의 대미 수출액은 11억9,823만 달러로 전제 수출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무역수지도 4억8,765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의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와 재개 가능성과 상호 관세에 중추가 예고되면서 도내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복자치도는 통상위기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미 통상정책 종합지원 자료 제공 △FTA 활용 컨설팅 △현지 규격인증 취득 지원 △수출피해 신고 접수 및 사후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은 품목군 중심으로 도내 주요 수출기업과 1:1 맞춤형 상담을 위해 중기부, 한

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수출기업 간담회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규격 인증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8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통상 전문가 컨설팅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시장 대비화와 도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 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전복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 600억원 특별자금과 전복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200억원 '희망전복' 함께 도약 '특례보증'을 연계해 추진된다.

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자금은 △긴급 대환자금 200억원 △거치기간 연장 지원 400억원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접수(전복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시스템, <http://jok.kr>)를 통해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복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기업당 최대 8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단기 유동성 위기 대응은 물론 장기적인 자금 운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련 신청 및 문의는 전복신용보증재단(☎1588-3833)을 통해 가능하다.

유망기업 판로 확장에도 소매를 걸어붙였다. 올해 수출 상담 행사, 전시회 단체·개별 참가 등으로 330여 개 기업의 수출길을 뚫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전주에서 도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2025 JB-FAIR'를 통해 맞춤형 바이어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전북자치도 수출현황을 반영한 국가 및 전략산업(품목)을 설정하고 무역사절단을 꾸려 현지 수출상담회를 추진하며, 해외 유망 전시회 도내

기업 단체참가 및 기업 수요에 따른 전시회 개별참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상 전문가가 밀착지원도 강화된다. 5월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전문가 설명회 및 교육을 진행했으며, 약 200명의 기업 대표와 수출 담당자가 참여했다.

2024년부터 추진된 통상전문가 매칭 지원도 지난해 30개사에서 올해 72개사로 확대된다. 기업과 통상전문가 일대일 매칭으로 대면상담은 물론 이메일, 카카오톡, 유선 등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리스크 해소에 도움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할인 등 수출보험 지원과 우정청과 함께 EMS, 국제물류 등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50%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날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jexport.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여협 발언’ 이준석, 자격 없다”

민주 도당 2030본부 대학생위, 3차 TV토론 관련 “공적 토론의 자리를 인터넷 커뮤니티처럼 여긴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2030본부 대학생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전남 열린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나온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여성 혐오”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위원회는 “이 후보가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고 폭력적인 표현을 반복했다”며 “공적 토론의 자리를 인터넷 커뮤니티처럼 여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석에서도 꺼내기 힘든 성폭력적 언행을 공공연히 한 사람에게 상식과 품격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후보를 “합람미달의 무자격자”라고 표현했다.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위원회는 “청년은 혐오에 기대어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년과 남성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이재명, 가장 필요한 정치적 도구”

민주 도당, 사전투표 앞두고 도민에 지지 호소

“투표로 내란 끝내고, 민생 회복하며 경제 살리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8일 성명을 내고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도당은 이번 대선을 “위험적 비상계엄과 국회 참탈을 시도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 위기를 돌파할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과 공생하고, 이준석 후보는 정의와 공감 조차 결여된 무책임한 후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상남

시장과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를 거머쥐며 정책 능력과 국민 중심 철학을 입증했다”며 “왜 지금이 이재명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표선수이자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정치적 도구”라며 “도민 여러분께 압도적인 지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로 내란을 끝내고, 민생을 회복하며, 경제를 살리자”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역사적 기회”

전북조국혁신위원회, 사전투표 앞두고 도민에 참여 촉구

‘1표의 책임, 5년의 미래 바꾼다’ 1:1 호소 캠페인 전개 중

전북조국혁신위원회가 제22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고인 79.5%를 기록한 재외국민투표율을 언급하며, “전북에서도 사전투표를 50%, 본투표까지

90% 투표율과 93% 득표율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세 차례의 TV토론을 거론하며 “윤석열 후보, 내란을 옹호한 김문수 후보, 분열을 조장한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위원회는 ‘1:1 사전투표 호소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1초의 결심, 1표의 책임이 5년의 미래를 바꾼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본격 행보

도, 경기장 점검·특별법 제정·국회 협조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조영식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은 2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최근 동향과 주요 현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 단장은 “28일 오후에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스포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월드컵경기장과 복합스포츠타운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점검에 나선 예정으로 이는 경기장 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며, 도내 외 주요 체육시설 3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스포츠 자문회의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장 신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한국스포츠과학원도 ‘신규 건설 제로화’, ‘지속 가능성’, ‘탄소중립’ 등 IOC의 비전을 반영한 방향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현역, 전북자치도는 최근 국회 국제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국제홍보, 특별



조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하계올림픽 추진단장이 28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법 제정,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 단장은 “국회에서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지역이 아닌 국가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인도의 올림픽 유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6월 말 인도 구지라트주 체육부 장관과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이 IOC 방문 일정을 잡고 있어, 이들의 교류 및 정보 공유도 추진 중이다.

조영식 단장은 “유치 성공을 위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유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현황 등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내달 16일 정례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5회 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개최한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나종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2개 안건은 원안 가결돼 오는 6월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4년도 군산시 결산승인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등을 다루며, 총 34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 군산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20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1차 정례회는 군산시의 한 해 살림을 결산하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서의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주요 사업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이다”며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다수 발의된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국힘 조배숙 도당위원장 “전북의 미래, 김문수 후보에게 맡겨달라”

사전투표 앞두고

도민에 지지 호소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북도민의 절실한 지지를 호소했다.

조 위원장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관계자 10여 명은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7일간 전북의 각 시군을 직접 방문해 도민들을 만나면서 지역 곳곳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청년들이 떠나고, 지역 경제는 멈춰서고, 소멸 위기에 내몰린 전북의 현실에 큰 안타까움과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2023년 전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DP)은 3,600만 원으로, 인접한 충청남도의 6,400만 원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격차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오랜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간 민주당에 전북 표를 물려줬지만, 도민 삶에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꼬집으며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커녕 공허한 공약만 남았고, 기회는 뺏겼다”고 안타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국힘 선대위 관계자들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까움을 표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는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단순히 당만 보고 표를 던지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령성과 실행력을 갖춘 김문수 후보가 바로 전북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 수원, 판교, 파주 등에서 대기업 유치와 지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광고·동탄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부패 의혹 한 건 없이 투명하게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전북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탄 입법’을 시도하는 등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전투표가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함께 전북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내가 먼저 투표하고, 이웃에게도 권하자”

민주 안호영 의원, 사전투표율 제고 위해

‘완주·진안·무주 사전투표 릴레이 캠페인’

“완진무가 가장 깨어있는 고장임을 보여주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앞서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전투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가 먼저 투표하고, 이웃에게도 투표를 권하자”는 취지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인증하고,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릴레이 형태다.

사전투표 릴레이 캠페인이 시작되자, 완주 삼례시장, 진안 군청 앞, 무주 읍내 등지에서 주민들이 인증샷을 남기며 릴레이 참여에 나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는데,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군민의 한 표 한 표가 진짜 대한민국을 여는 시작”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완진무가 다시 한번 전국에서 가장 깨어있는 유권자의 고장임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완진무의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완진무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이겨지는 마중물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만호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침